

성별과 가해자 연령이 아동 성폭력 사건 인식에 미치는 영향

김 현 승[†]

박 지 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지난 10년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 성폭력 사건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가해자의 연령을 아동과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여 가해자 연령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며,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가 아동 성폭력 관련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총 210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가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을 조사하고,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이를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 검정, 매개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동일 때 청소년인 가해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았고, 권위주의 성격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이 피해자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성폭력 통념이 매개하며, 이 매개효과를 권위주의가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 성폭력, 가해자 연령, 가해자 처벌, 피해자 책임, 성폭력 통념, 권위주의

[†] 제 1저자: 김현승,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아동 성폭력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05조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에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의 집계 건수는 총 1,283건으로, 10년 전인 2009년보다 27.4%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19). 2018년에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는 강제추행(73.3%)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강간/간음(16.5%)은 두 번째로 많았다(대검찰청, 2019). 피해 아동 중 86.5%는 여자였으며, 가해자의 97.8%가 남성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19).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한 아동의 부모가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등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 간 성폭력 피해도 보고되어 왔다(조성미, 2019, 12, 5). 이처럼 가해자가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정작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주변에서 사건을 감추려 하는 등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는 대부분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동 피해자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의 처벌이나 피해자의 책임 등 관련 연구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한정일, 김승언, 정주호, 2018).

아동은 성인보다 가해자의 협박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어린 아동일수록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성도경, 이지영, 2012; 손경숙, 2008).

때로는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가 어렵게 수사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손경숙, 2008).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족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당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용인 가능한 일이라고 간주당하는 등 이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이것이 때로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감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김보화, 추지현, 이미경, 2017). 그러므로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편향된 인식이 드러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책임이나 가해자의 처벌 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해자 연령에 따른 성폭력 사건 인식 차이

성폭력 가해자 특성 중 연령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인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 혹은 청소년인 성범죄자와 성인인 성범죄자를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고은숙, 이세정, 이호준, 2018; 심진섭, 임성문, 2001; 장석현, 김도우, 김미경, 2011). 그러나 아동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몇몇 연구들은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성폭력 피해의 발생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먼저 가해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의 아동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나누어 피해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해의 정도와 발생 횟수, 발생

시간에서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조영란, 홍해숙, 2014). 즉, 청소년 가해자가 다른 연령대의 가해자보다 가해 정도가 더 심각했고, 성인 가해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가해 횟수가 더 많았다(조영란, 홍해숙, 2014). 또 아동 및 청소년 가해자는 주로 오후 시간대에 범행을 한 반면, 성인 가해자는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조영란, 홍해숙, 2014). 더불어,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도 보고되었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을 각각 25세와 40세로 설정하여 모의 배심원들의 판단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의 연령은 피고인에 대한 신뢰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Pozzulo, Dempsey, Maeder, & Allen, 2010). 즉, 모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나이가 많을 때 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Pozzulo et al., 2010). 한편,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을 19세와 47세로 각각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있어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Strömwall, Landström, & Alfredsson, 2014).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아동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보고한 연구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고, 특히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연령을 아동과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여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의 책임 등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강간통념의 한계 및 성폭력 통념의 영향

강간통념은 강간과 강간 피해자, 강간 가해자에 대한 해롭고 잘못된 믿음으로 정의되나(Burt, 1980), 이러한 정의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해로운지에 대해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Lonsway & Fitzgerald, 1994).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강간통념은 전반적으로 잘못되었지만 널리 퍼지고 끊임없이 유지되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성을 부인하고 정당화하는 태도이자 신념으로 정의된다(Lonsway & Fitzgerald, 1994).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성폭력을 남성의 본능이라 합리화하고, 성폭력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을 보인다(박지선, 김정희, 2011; 윤병혜, 고재홍, 2006). 또 강간통념은 가해자의 관점을 강화하며, 성적 괴롭힘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이명신, 2014). 이처럼 강간통념이 성폭력 가해와 피해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보고되어왔다.

우선 성폭력 가해와 관련하여,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성폭력 사건을 폭력적이지 않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석재, 최상진, 2001). 또 강간통념을 수용할수록 실제 성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경험이 많았다(이석재, 최상진, 2001). 또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은 남성일수록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경향성이 높고, 이는 데이트 성폭력 행위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이지연, 이은설, 2005).

강간통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 발생에 있어 자기 귀인을 함으로써 우울도가 높았다(김재엽, 최지현, 2009). 강간통념

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었다(Peterson & Muehlenhard, 2004). 즉, 여성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여성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강간통념을 더 잘 수용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를 강간이라고 규정할 가능성이 낮았다(Peterson & Muehlenhard, 2004).

강간통념은 수용도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는데, 대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고재홍, 지영단, 2002; 김재은, 김지현, 2016; 이진호, 강혜자, 2005; 최인숙, 김정인, 2015).

강간통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는 한계점 중 하나는 대체로 '강간, 즉 성기삽입을 전제로 한 성폭력 중심의 통념 위주이며, 성기삽입 이외의 성폭력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점이다(김보화 등, 2017). 특히 권인숙, 이진정, 김선영(2016)은 그간 강간통념 연구에서 피해에 대한 통념이 상당 부분 배제된 채로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권인숙 등(2016)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강간통념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통념(예: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과 관련된 문항들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은 기존의 강간통념 척도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피해통념 경험이 많았다(권인숙 등, 2016). 더불어 강간통념 경험이 많을수록 피해통념 경험 역시 많다는 결과를 통해 강간통념과 피해통념 경험은 일상 속에서 함께 수반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권인숙 등, 2016). 더불어 성기삽입이 수반되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폭력 통념 경험이 삽입 피해자들과 유사하게 나타나, '강간' 중심의 통념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권

인숙 등, 2016).

이러한 맥락에서, 김보화 등(2017)은 피해자들이 경험한 성폭력 통념을 '피해 진정성 의심', '피해자 비난', '피해 사소화', '피해자에 대한 낙인' 등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아동 피해자보다 성인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비난 통념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경우보다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피해 진정성을 의심받는 경험이 더 많았다(김보화 등, 2017).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피해자의 성폭력 후유증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성폭력 통념이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추지현, 권인숙, 2017). 즉,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주변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가해자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등의 성폭력 통념을 더 많이 경험했고, 그로 인해 성폭력 후유증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추지현, 권인숙, 2017).

이처럼 성폭력 통념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통념이 아동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권위주의 성격

권위주의 성격은 편견에 취약하며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권위와 그 권위를 지닌 사람 및 집단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며 소수집단을 적대시하는 등의 성격을 지칭한다(민경환, 1989; 홍지웅, 주혜원, 현명호, 2016). 권위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개인으로 지각하기보다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민

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및 차별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강현선, 김현주, 2016; 정상원, 권구순, 2014). 실제로 권위주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년일수록 이주민과 노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신학진, 2013). 또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외국인 집단에 대해 사회적 거리를 느끼고(임도경, 김창숙, 2011; 정상원, 권구순, 2014), 더 나아가 인종차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Reynolds, Turner, Haslam, & Ryan, 2001; Zakrisson, 2005). 한편,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높게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강현선, 김현주, 2016;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더불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권위주의 성격도 동성애에 대한 공포에 영향을 미쳤다(김은하, 신윤정, 2016).

권위주의 성격은 여성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우선, 교사들의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전통적인 성역할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김은하, 신윤정, 2016). 또한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지지가 더 높고, 여성과 관련 있는 정치적 이슈들의 중요도를 더 낮게 평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Duncan, Peterson, & Winter, 1997). 더불어 권위주의 성격이 높게 나타날수록 성차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Zakrisson, 2005), 권위주의 성격은 실제 높은 성적 공격성과도 관련이 있었다(Walker, Rowe, & Quinsey, 1993). 권위주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수인, 2005).

그간 성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강간통념이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차례 조사되어 왔다(박지선, 박인선, 2011; 이건호, 강혜자, 2005). 그러나 이처럼 권위주의 성격이 여성에 대한 태도나 성적 공격성과도 관련이 높다는 그간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Duncan et al., 1997; Walker et al., 1993), 권위주의 성격이 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 그 가운데에서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성폭력 통념과 함께 권위주의 성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가해자 및 피해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꾸준히 언급되는 요인 중 하나는 판단자의 성별이다(김범준, 2007; 김혜선, 박지선, 2018; 오주령, 박지선, 2019; 황인정, 2007; Back & Lips, 1998; Cohn, Dupuis, & Brown, 2009; Deitz, Littman, & Bentley, 1984; Loughnan, Pina, Vasquez, & Puvia, 2013; Pettalia, Pozzulo, & Reed, 2017; Pozzulo et al., 2010; Strömwall, Alfredsson, & Landström, 2013; Strömwall et al., 2014). 강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여성보다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고,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평가하며, 가해자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부과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윤병해, 고재홍, 2006; Bieneck & Krahé, 2011).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폭력 가해자에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김범준, 2007; 황인정, 2007). 한편 남성은 여성보다 더 성폭력 피해자에 책임을 돌리고 피고인의 유죄를 덜 확신하였으며,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

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Deitz et al., 1984). 아동 성학대 사건 판단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났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Back & Lips, 1998). 아동 성학대 사건에서 모의 배심원 가운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피고인을 덜 신뢰했고 피해자를 더 신뢰했으며, 가해자에게 유죄판단을 더 많이 내렸다(Pettalia et al., 2017). 이와 같이 모의 배심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게 더 유죄판단을 많이 내렸고, 피해자를 더 신뢰했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더 돌렸다(Pozzulo et al., 2010).

한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도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책임 인식에 미치는 성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Cohn et al., 2009). 또한 강간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식과 피해자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조은경, 박지선, 2020; Loughnan et al., 2013). 성폭력 피해자 비난에 있어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Strömwall et al., 2013), 단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자를 덜 비난하고 가해자를 더 비난하였다(Strömwall et al., 2014).

성폭력 통념도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Ayala, Kotary, & Hetz, 2018; Cohn et al., 2009; Krahe, 1988). 다시 말해서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자 비난이 증가하는 반면, 가

해자 비난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Ayala et al., 2018). 또 지인 사이에 발생한 강간에 있어,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가해자의 책임은 낮게 평가하였다(Cohn et al., 2009). 강간의 책임 귀인에 있어 연구 참여자의 강간통념 수용도는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Krahe, 1988).

성범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비교적 빈번히 보고되는 이차 피해의 유형 중 하나로, 사건으로부터 겪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홍영은, 박지선, 2018; Doherty & Anderson, 1998). 또한 성폭력의 책임을 가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는 동시에 범죄의 심각성을 경감시킨다(Loughnan et al., 2013). 이렇게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감소나 관대한 처벌로도 연결된다(서윤정, 박지선,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가운데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처벌의 정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 연구가 성인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넘어, 아동 성폭력을 대상으로 이러한 인식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간 연구되어 온 성폭력 통념과 함께 권위주의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해자 연령이 낮을수록 가해

자를 덜 비난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더 가볍게 부과하며,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평가하고, 피해자가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성차가 존재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성폭력 가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에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며, 피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가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더불어,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 성격에서도 성차가 나타날 것이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더 성폭력 통념이 높게 나타날 것이고, 권위주의 성격도 더 강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연구 참여자 성별이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성폭력 통념이 매개할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폭력 통념이 낮게 나타날 것이고, 성폭력 통념이 낮을수록 가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에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며, 피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가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연구문제 4. 연구 참여자 성별이 가해자 및 피해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폭력 통념의 매개효과를 권위주의 성격이 조절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인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는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108명(51.43%), 남성이 102명(48.57%)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의 범위는 20세부터 68세였고, 평균 연령은 43.69세($SD = 13.54$)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는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 42명씩 분포하였다.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이어진 문항에 응답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인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시나리오는 가해자의 연령(아동, 청소년, 성인)에 따라 3가지로 구성하였고, 각 가해자 연령당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 하나씩이 시나리오로 제공되어 총 6가지의 시나리오가 구성되었다. 가해자 연령과 범죄 유형(강간과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용은 동일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섯 가지 시나리오 중 한 가지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각 조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수는 35명으로 동일했고, 여성은 18명씩, 남성은 17명씩 참여하였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별로 7명씩 참가하였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0월 0일 토요일 오후 4시경, [12세 남아 / 17세 남성 / 30대 남성] A는 피시방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동네 놀이터에서 마침 심부름을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0세, 여)를 발견하고, '저쪽에서 친구가 쓰러졌는데 도와줄 수 있냐며 골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의 입을 막고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 /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측정도구

가해자 및 피해자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이어진 가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즉, 가해자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피해자가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최대한 가볍게(1점)'에서 '최대한 무겁게(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성폭력 통념

연구 참여자들의 성폭력 통념을 조사하기 위해 김보화 등(2017)에서 사용된 16문항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김보화 등(2017)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본인이 경험했던 통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인생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 '네가 끝까지 저항했다면 성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연구 참여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표현들을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인생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나 '여자가 끝까지 저항했다면 성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와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존 김보화 등(2017)에서 사용된 16문항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16개 문항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폭력 통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6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다.

권위주의 성격

연구 참여자들의 권위주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권위주의 성격 척도 35문항(민경환, 1989)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에는 '사람은 모두 천성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한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 '가정이나 학교나 권위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권위주의 성격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 성격을 높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5개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9였다.

분석방법

자료 분석에 SPSS 25.0과 PROCESS MACRO 3.4를 사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대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와 3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4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조절분석을 먼저 실시한 뒤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

였다. 모든 분석에서 범죄 유형(강간, 강제추행)은 나누지 않고 합쳐서 분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우선, 연구 참여자가 남성일 때 여성일 때보다 높은 성폭력 통념 수용도($r = .34, p < .001$)와 높은 권위주의 성격($r = .22, p < .01$)을 드러내었고,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r = .14, p < .05$) 평가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가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평

가하였다($r = .16, p < .05$). 한편 연구 참여자의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권위주의 성격도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r = .60, p < .001$),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r = .38, p < .001$). 또한 연구 참여자가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r = .35, p < .001$). 가해자를 비난할수록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으며($r = .39, p < .001$), 피해자의 고통 또한 더 크게 평가하였다($r = .18, p < .01$).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평가할수록 피해자의 고통을 더 적게 평가하였다($r = -.28, p < .001$).

가해자 연령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 인식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2, 표 3 참조).

그 결과,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연구 참여자 성별	1								
2. 연구 참여자 연령	0.01	1							
3. 가해자 연령	0.00	0.00	1						
4. 성폭력 통념	.34***	0.07	-0.08	1					
5. 권위주의	.22**	0.05	0.02	.60***	1				
6. 가해자 비난	-0.02	0.01	0.13	-0.13	-0.08	1			
7. 가해자 처벌	-0.02	-0.09	.16*	-0.14	0.01	.39***	1		
8. 피해자 책임	.14*	-0.02	0.01	.38***	.35***	-0.12	-0.07	1	
9. 피해자 고통	-0.12	0.10	-0.03	-0.07	0.04	.18**	0.13	-.28***	1

주. 연구 참여자 성별: 1 = 여자, 2 = 남자, 가해자 연령: 1 = 아동, 2 = 청소년, 3 = 성인.

* $p < .05$, ** $p < .01$, *** $p < .001$

표 2. 가해자 연령에 따른 성폭력 인식

유형	아동		청소년		성인	
	N	M(SD)	N	M(SD)	N	M(SD)
가해자 비난	70	6.60(0.91)	70	6.87(0.38)	70	6.83(0.78)
가해자 처벌	70	6.43(0.86)	70	6.77(0.49)	70	6.73(0.87)
피해자 책임	70	1.81(1.32)	70	1.71(1.34)	70	1.84(1.60)
피해자 고통	70	6.81(0.49)	70	6.67(1.10)	70	6.76(0.84)

표 3. 가해자 연령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 차이

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artial η^2	Scheffe 검증 결과
가해자 비난	집단 간	2.98	2	1.49	2.84	.027
	집단 내	108.59	207	0.53		
	합계	111.57	209			
가해자 처벌	집단 간	4.89	2	2.44	4.24*	.039 아동 < 청소년
	집단 내	119.33	207	0.58		
	합계	124.21	209			
피해자 책임	집단 간	0.64	2	0.32	0.16	.002
	집단 내	422.14	207	2.04		
	합계	422.78	209			
피해자 고통	집단 간	0.72	2	0.36	0.50	.005
	집단 내	148.90	207	0.72		
	합계	149.62	209			

* $p < .05$

벌에 대한 인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4.24, p < .05$).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가 청소년일 때보다 아동일 때 더 가볍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가해자 연령에 따른 가해자 비난, 피해자 책임 및 고통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 성별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 인식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4 참조). 그 결과 피해자 책임 인식($t = -2.07, p < .05$), 성폭력 통념($t = -5.13, p < .001$), 권위주의 성격($t = -3.18, p <$

표 4. 연구 참여자 성별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 성폭력 통념, 권위주의 성격 차이

척도	여성 M(SD)	남성 M(SD)	t	df	d
가해자 비난	6.78(0.86)	6.75(0.57)	0.23	208	0.03
가해자 처벌	6.66(0.79)	6.63(0.76)	0.28	208	0.04
피해자 책임	1.59(1.19)	2.00(1.61)	-2.07*	185.65	-0.30
피해자 고통	6.84(0.70)	6.65(0.97)	1.67	182.75	0.25
성폭력 통념	33.06(7.25)	38.69(8.65)	-5.13***	208	-0.71
권위주의 성격	97.90(16.44)	104.97(15.74)	-3.18**	208	-0.44

* $p < .05$, ** $p < .01$, *** $p < .001$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지각했으며, 성폭력 통념을 더 높게 수용하였고, 권위주의 성격도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가해자 비난 및 처벌, 피해자 고통 인식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폭력 통념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3을 검증하고자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 성별에 따른 피해자 책임 인식을 성폭력 통념이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을 1로, 남성을 2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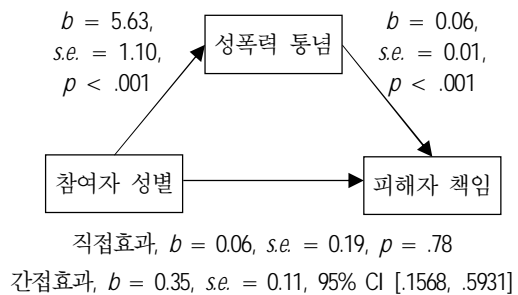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참여자 성별과 피해자 책임에 대한 성폭력 통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피해자 책임에 대한 성폭력 통념의 매개효과는 유의했다(그림 1 참조). 즉, 연구 참여자가 남성일 때 성폭력 통념을 더 높게 수용했고($b = 5.63, s.e. = 1.10, p < .001$), 성폭력 통념이 높을수록 피해자 책임을 더 높게 인식했다($b = 0.06, s.e. = 0.01, p < .001$). 또, 연구 참여자의 성별이 피해자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성폭력 통념이 매개했다($b = 0.35, s.e. = 0.11, 95\% CI [.1568, .5931]$).

한편, 가해자 비난 및 처벌, 피해자 고통에 대한 성폭력 통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어진 조절분석과 조절된 매개 분석에서는 피해자 책임에 대해서만 검증하였다.

권위주의 성격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4를 검증하기 전 권위주의 성격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였다. 성폭력 통념, 권위주의 성격, 피해자 책임 인식 모두 연구 참여자 성차가 유의했으므로, 연구 참여자 성별을 더미변환(여성 = 0, 남성 = 1)한 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폭력 통념이 피해자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권위주의 성격의 조절효과가 유의했다($b = 0.001, s.e. = 0.001, 95\% CI [.0001, .0025]$). 연구 참여자 성별이 피해자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권위주의 성격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므로($b = -0.001, s.e. = 0.01, 95\% CI [-.0274, .0263]$) 이어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피해자 책임 인식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

연구문제 4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그림 2 참조). 분석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가 유의하여($b = 0.01, s.e. = 0.004, 95\% CI [.0002, .0144]$)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 성별이 성폭력 통념에 미치는 양적인 영향이

표 5. 피해자 책임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모형 1	중속변인: 성폭력 통념			
	B	S.E.	t	
상수	-8.37	1.64	-5.11***	
연구 참여자 성별	5.63	1.10	5.10***	
모형 2	중속변인: 피해자 책임			
	B	S.E.	t	
	상수	1.63	0.27	6.08***
	연구 참여자 성별	0.04	0.18	0.20
	성폭력 통념(A)	0.03	0.02	1.94
	권위주의 성격(B)	0.02	0.01	2.39*
A × B	0.001	0.001	2.08*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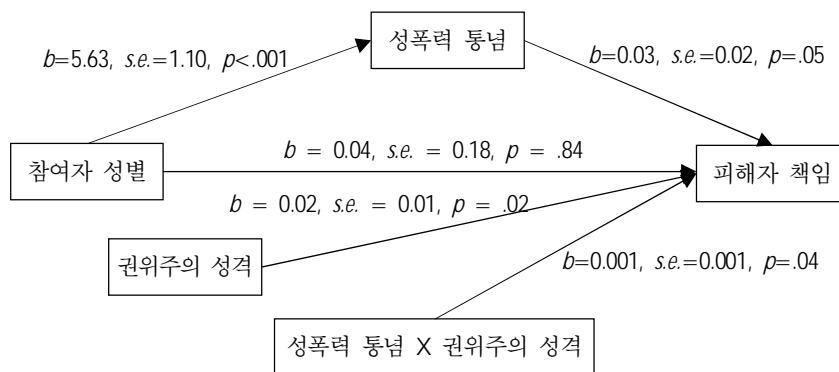


그림 2. 피해자 책임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

표 6. 권위주의 성격의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권위주의 성격	B	S.E.	LLCI	ULCI
M-1SD	.0654	.1142	-.1509	.3028
M	.1835	.1046	-.0057	.4142
M+1SD	.3016	.1264	.0735	.5770

유의했으며($b = 5.63, se = 1.10, p < .001$), 성폭력 통념과 피해자 책임 인식에 대한 권위주의 성격의 정적인 조절효과가 유의했다($b = 0.001, se = 0.001, p = .0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표 6 참조). 검증 결과, 권위주의 성격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30, se = 0.13, 95\% CI [.0735, .5770]$). 그러나 권위주의 성격이 평균인 경우나($b = 0.18, se = 0.10, 95\% CI [-.0057, .4142]$) 낮은 경우($b = 0.07, se = 0.11, 95\% CI [-.1509, .3028]$),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권위주의 성격이 높은 조건에서 성별이 남성일 때 성폭력 통념이 높고, 그로 인해 피해자 책임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그간 꾸준히 발생 증가 추세를 보여 온 아동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아동 성폭력 인식에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 성격

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에서 가해자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해자가 청소년일 때 아동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아동 가해자에게 보다 가벼운 처벌 판단을 한 것과는 달리, 청소년 가해자와 성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 판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미성년자인 경우 등 그 연령이 낮을 때 보다 가벼운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그간 살인 등 다른 범죄의 양형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나(이민식, 201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해자를 성인 가해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아동 가해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과는 구별되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아동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보고한 연구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든 현 시점에서, 앞으로 청소년과 구별되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처벌 판단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양형 판단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한편, 가해자에 대한 비난, 피해자 책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인식에서는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가해자 비난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하지만(Strömwall et al., 2014), 피해자 책임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에 반하는 결과이다(Pozzulo et al.,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 피해자를 10세 여아로 설정한 아동 성폭력 사건을 제시했음을 고려할 때, 이처럼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나 피해자의 책임에 대해 가해자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 기존의 강간통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연구 참여자의 성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며, 성폭력 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인식한 결과들은 국내외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윤병해, 고재홍, 2006; Back & Lips, 1998; Cohn et al., 2009). 놀라운 점은 본 연구가 피해자를 10세 여아로 설정한 아동 성폭력 사건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통념이 피해자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유의했다는 점이다. 즉,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에 있어서도 여전히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 성폭력 통념의 영향이 드러난 점은, 성인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동 피해자에 대한 이차 피해의 우려 역시 크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서 권위주의 성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그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간 권위주의 성격은 성차별이나 성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Walker et al., 1993; Zakrisson, 2005), 본 연구에서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특히 피

해자 책임 지각에 연구 참여자의 권위주의 성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권위주의 성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에 역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양상이 성폭력 외에 살인이나 폭행 등 다른 범죄 유형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 성격의 관계 또한 확인하였다. 즉,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권위주의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나며,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 책임 인식에 대한 성폭력 통념의 매개효과를 권위주의 성격이 조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 어리고 차별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성폭력 통념과,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주의 성격이 상호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리킨다. 향후 성범죄 혹은 범죄 전반에 대한 인식에서 이러한 영향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전반에 걸쳐 가해자 비난 및 피해자 고통 인식은 가해자의 연령이나 판단자의 성별 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Loughnan et al., 2013; Strömwall et al., 2013).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인식하는 데 있어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또는 사람들이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다르게 인식하여 그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Strömwall et al., 2013). 즉, 본 연구는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처벌, 피해자의 책임과 고통 인식이 서로 유사한 것을 측정하는 듯 보이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 성폭력 외에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서도 이렇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더불어 성폭력 범죄 외에 다른 유형의 범죄, 즉 살인이나 강도, 절도, 방화 등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으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청소년이나 성인일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피해자 연령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가해자의 연령 및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고, 연구 참여자 성별에 따른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인식에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13세 이상 20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서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남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대검찰청, 2019), 본 연구에서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고정하였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우선, 성폭력 사건에 관한 인식에서 권위주의 성격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극히 드문 현 시점에서, 그 영향을 밝힌 결과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이차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일조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상호작용하는 경찰이나 판사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피해자에 대한 이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통념을 낮추고 권위주의적 태도로 피해자를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배심원들을 교육하는 데에도 성폭력 통념이나 피해자 책임 등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 대상 성폭력 인식에 대한 연구 및 아동 가해자, 아동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희소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추후에는 이를 확장하여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아동 간 성폭력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다 효율적 대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선, 김현주 (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47), 7-29.
- 고은숙, 이세정, 이호준 (2018). 청소년의 성범죄 실태와 그 심리. *법학연구*, 18(1), 431-451.
- 고재홍, 지영단 (2002).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잘못된 강간통념 수용간의 매개변인과

- 조정변인의 역할. 청소년상담연구, 10(1), 87-105.
- 권인숙, 이진정, 김선영 (201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통념의 2차 피해적 영향 연구. 젠더와 문화, 9(2), 49-84.
- 김범준 (2007).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남녀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3), 57-73.
- 김보화, 추지현, 이미경 (2017).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따른 피해자의 성폭력 통념 경험. 피해자학연구, 25(2), 89-121.
- 김은하, 신윤정 (2016). 중·고등학교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정서적 공감에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431-453.
- 김재엽, 최지현 (2009). 성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0(2), 231-247.
-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 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1), 187-205.
- 김혜선, 박지선. (2018). 동물학대의 재범방지 및 처벌강화 인식에 대한 연구: 성별 및 폭력허용도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28(3), 51-82.
- 대검찰청 (2019). 2019 범죄분석.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n>에서 2020, 8, 7 자료 얻음.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146-168.
- 박지선, 김정희. (20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19(2), 77-96.
- 박지선, 박인선. (2011).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 실제 국내 강간 범죄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362-371.
-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 서윤정, 박지선. (2013).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7(1), 33-59.
- 성도경, 이지영 (2012).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239-267.
- 손경숙 (2008). 아동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동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대책방안 연구. 인권복지연구, (4), 103-130.
- 신학진 (2013). 중년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외집단 접촉경험이 차별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4), 113-134.
- 심진섭, 임성문 (2001).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인 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 사회과학연구, 18(2), 147-163.
-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건호, 강혜자 (2005).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3), 23-40.

- 이명신 (2014).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재정의: 남녀대학생의 강간통념, 성희롱 인식, 성적 괴롭힘 행동을 중심으로 경험적 재구성. *젠더와 문화*, 7(1), 43-97.
- 이민식 (2012). 양형에 대한 연령과 범죄경력 의 상호작용효과 검토: 살인범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6(2), 213-234.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수인 (2005). 권위주의의 특성과 재생산과정 의 성 차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3), 51-76.
- 이지연, 이은설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19-436.
- 임도경, 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1), 5-34.
- 장석현, 김도우, 김미경 (2011). 성인성범죄자와 청소년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1), 133-154.
- 정상원, 권구순 (2014). 권위주의적 성격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편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27, 105-133.
- 조성미 (2019, 12, 5). [SNS 세상] "터질게 터졌다"...맘카페 '아동간 성폭력' 토로 잇달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160200505?input=1195m> 에서 2020, 1, 29 자료 얻음.
- 조영란, 홍해숙 (2014). 아동 성폭력 피해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과학수사학회지*, 8(3), 189-196.
- 조은경, 박지선. (2020). 강간과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의 차이: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1), 45-66.
- 최인숙, 김정인 (2015).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 폭력수용 및 성역할-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277-300.
- 추지현, 권인숙 (2017). 가해자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성폭력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성폭력 통념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8), 179-203.
- 한정일, 김승언, 정주호 (2018).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4(3), 157-172.
- 홍영은, 박지선. (20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1-18.
- 홍지웅, 주해원, 현명호 (2016). 청소년의 권위주의 성격과 친애동기가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효과: 암묵적 연합검사를 활용하여. *청소년학연구*, 23(9), 233-254.
- 황인정 (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07-121.
- Ayala, E. E., Kotary, B., & Hetz, M. (2018). Blame attributions of victims and perpetrators: Effects of victim gender, perpetrator gender, and relationshi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3(1), 94-116.

- Back, S., & Lips, H. M. (1998). Child sexual abuse: Victim age, victim gender, and observer gender as factors contributing to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Child Abuse & Neglect, 22*(12), 1239-1252.
- Bieneck, S., & Krahe, B. (2011). Blaming the victim and exonerating the perpetrator in cases of rape and robbery: Is there a double standar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9), 1785-1797.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 Cohn, E. S., Dupuis, E. C., & Brown, T. M. (2009). In the eye of the beholder: Do behavior and character affect victim and perpetrator responsibility for acquaintance rap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9*(7), 1513-1535.
- Deitz, S. R., Littman, M., & Bentley, B. J. (1984).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rape: The influence of observer empathy, victim resistance, and victim attractiveness. *Sex Roles, 10*(3-4), 261-280.
- Doherty, K., & Anderson, I. (1998). Talking about rape. *The Psychologist, 11*(12), 583-586.
- Duncan, L. E., Peterson, B. E., & Winter, D. G. (1997). Authoritarianism and gender roles: Toward a psychological analysis of hegemon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1), 41-49.
- Krahe, B. (1988). Victim and observer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s to victims of rap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1), 50-58.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2), 133-164.
- Loughnan, S., Pina, A., Vasquez, E. A., & Puvia, E. (2013). Sexual objectification increases rape victim blame and decreases perceived suffer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7*(4), 455-461.
- Peterson, Z. D., & Muehlenhard, C. L. (2004). Was it rape? The function of women's Rape Myth Acceptance and definitions of sex in labeling their own experiences. *Sex Roles, 51*(3-4), 129-144.
- Pettalia, J., Pozzulo, J. D., & Reed, J. (2017). The influence of sex on mock jurors' verdicts across type of child abuse cases. *Child Abuse & Neglect, 69*, 1-9.
- Pozzulo, J. D., Dempsey, J., Maeder, E., & Allen, L. (2010). The effects of victim gender, defendant gender, and defendant age on juror decision mak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1), 47-63.
- Reynolds, K. J., Turner, J. C., Haslam, S. A., & Ryan, M. K. (2001). The role of personality and group factors in explaining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5), 427-434.
- Strömwall, L. A., Alfredsson, H., & Landström, S. (2013). Rape victim and perpetrator blame and the Just World hypothesis: The influence of victim gender and age.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9*(2), 207-217.
- Strömwall, L. A., Landström, S., & Alfredsson, H. (2014).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nd blame attributions in a stranger rape situ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Applied to Legal*

- Context*, 6(2), 63-67.
- Walker, W. D., Rowe, R. C., & Quinsey, V. L. (1993). Authoritarianism and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1036-1045.
- Zakrisson, I. (2005).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5), 863-872.
- 1 차원고접수 : 2020. 09. 18.
심사통과접수 : 2020. 10. 26.
최종원고접수 : 2020. 11. 13.

Effects of Gender and Perpetrator age on the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Hyeonseung Kim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ild sexual abuse (CSA), under the age of 13, has increased over the past ten years, but research on the perceptions of perpetrators and victims have mainly focused on sexual violence against adults. Differentiating the age of the perpetrator into child, adolescent, and adult, the present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erpetrators and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The study also investigated differences by the gender of respondents, and examined the effects of Sexual Violence Myths (SVM) and Authoritarian Personality on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A total of 210 people in their 20s to 60s evaluated the degree to perpetrator blaming, perpetrator punishment, victim responsibility, and pain of the victim, and responded to the SVM scale and 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 The correlation analysis, one-way ANOVA,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medi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perpetrator punishment by the age of the perpetrator was significant, indicating that respondents thought that adolescent perpetrators should be more severely punished than child perpetrators. Male respondents compared to female respondents were more likely to attribute the responsibility of sexual assault to the victim, to accept sexual violence myths and to be authoritarian. Sexual Violence Myths mediated the effects of the gender of respondents on the percep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and Authoritarian Personality moderated these mediation effects. Finall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 sexual abuse, perpetrator age, perpetrator punishment, victim responsibility, Sexual Violence Myths, Authoritarian Personality

부 록

성폭력 통념 척도(김보화 등, 2017)

1. 성폭력을 당한 여자의 몸은 더럽혀진 것이다.
2.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3.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4.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인생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
5.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앞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6. 네가 끝까지 저항했다면 성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7. 성폭력은 네가 유혹하거나 유발한 면이 있다.
8. 네가 남자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9.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문제가 있는 여자이다.
10. 남자가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 실수한 것이다.
11. 네가 과도하게 예민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12. 네가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너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13. 너의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4. 너도 사실 그 당시에는 즐겼을 수도 있다.
15.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그 사람의 진심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
16. 여자들은 보복심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성폭력 신고를 하기도 한다.

성폭력 통념 척도(본 연구에서 사용)

1. 성폭력을 당한 여자의 몸은 더럽혀진 것이다.
2.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3.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4.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인생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
5.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앞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6. 여자가 끝까지 저항했다면 성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7. 성폭력은 여자가 유혹하거나 유발한 면이 있다.
8. 여자가 남자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9.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문제가 있는 여자이다.
10. 남자가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 실수한 것이다.
11. 여자가 과도하게 예민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12.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그 여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13.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4. 성폭력을 당한 여자도 사실 그 당시에는 즐겼을 수도 있다.
15.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여자가 그 사람의 진심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
16. 여자들은 보복심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성폭력 신고를 하기도 한다.